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류청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인생 이모작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주도적인 의식성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식성형이다라는 말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용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필요로 하는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집단지성과 자기주도적인
적시학습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의 배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재미나게 20세기 때의

개념과 21세기 때 개념으로 크게 나뉘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때 집단지성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용어도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Pack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군요. Pack Intelligence 그래서 이거를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Pack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음식을 하거나
물건을 샀을 때, 또는 소포로 보낼 때 우리가 소포를

포장을 한다고 하죠, packaging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20세기까지는 왜 집단지성을 Pack Intelligence라고
했을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것이 미래의

자신의 의식을 성형해 나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20세기에는

여러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동일한 시간을 정해놓고 동일한 장소에 모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모여서 어떤 현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장소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의제를 정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포장을 한다,

꾸러미로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Pack Intelligence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21세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너무나 바빠지다 보니까 한 자리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으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킹의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되 적절한 타임블록을 정해주면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곳에서 그러한 어떤 의제와 관련된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의 생각을 **packaging** 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그러한 단어, **collect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형 집단지성은 **Collective Intelligence**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지금도 **packing** 개념의 집단지성을 교육적으로 활용해서 더 이점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collective** 방식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더 장점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둔다면

훨씬 더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적시학습이라는 또 생소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학습이다

그러면 **learning**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서양인들은 **just in time**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just in time learning** 그러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제때에 맞는 적절한 학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로 사용한다면 실용학습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용학습을 또 두 음절로 줄여본다면 실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러한 **just in time learning**에 대한 개념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국이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Pragmatism**이라는 용어로 출발하였고, 우리나라도 조선 중후기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실학파들에 의해서 실학운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학운동을 이 사회의 기저 철학으로

뿌리내린 미국의 경우 현재 세계의 주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초강대국이 되었다는 뜻이죠. 반면에

우리는 미국보다도 약 100여 년 빨리 이러한 실학운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다시 이와 같은 실용학습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적시학습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야라고 판단돼서 힘들고 어렵게 암기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서구학자들은 **unlearn**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 당장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바로바로 습득해서

사용하고, 다시 또 버려버리는 **unlearn**과 **rerun**의 반복 이것을 **just in time learning**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나의 아쉬운 부분의 의식을 성형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활용하기 쉬운 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쉬운 모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난 모형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내놓은 6단계 의식의 흐름 모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식의 흐름 첫 단계는 우선 내가

나의 의식이 변하려면 생각이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하면 태도가 바뀐다.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습관이 변하면 성격이, 성격이 변하면 인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이 변하면 비로소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에서 아쉬웠던 의식들을 전부 변화시켜서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윌리엄 제임스의 6단계 의식의 흐름 모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자가진단을 해나갈 것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기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자신이 생각해도 좀 아쉽거나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부정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스킬을 찾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약점 스킬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는 단계를 윌리엄 제임스의 2단계와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점 스킬을 찾았고, 그거에 대한 원인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식의 훈련의

3단계와 4단계를 거쳐서 나의 약점 스킬을 보완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타인의 힘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윌리엄 제임스의 5단계와 6단계를 모아서 보완된 약점 스킬과 자신의 강점 스킬을 융합한 다음에

이것을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는 데 활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TIP을 드린다면 서구의 학자들은 상당히 분석적으로

스킬, 또는 약점 스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두드러진 것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밝게

약수를 청하나요? 아니면 수줍어하면서 기다려주나요?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10명 중의 7명은

나는 수줍음이 많습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전 인류의

2/3 이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최대의 약점 스킬이 바로 다름 아닌 **Shyness**입니다. 수줍음인 것이죠.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자기부정을 통해서 우연히도 나는 수줍음이라는 스킬이

취약적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거 하나만 고쳐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의 2/3가 가지고 있는 약점 스킬을 극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위 1/3에

어느 순간 포함되는 그러한 어떤 강점 스킬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수줍음을 극복해보는 그런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자기주도적인 의식성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